



푸근한 겨울 낮. 조계사에서 원성 스님을 만났다. 사진=고영배 기자

interview 영국 유학 마치고 3년만에 돌아온 원성 스님

“깨달음의 말씀 그림과 글로 전하고자”

“동자승도 없고 불교적인 내용도 없는 <꽃비>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3년여 간의 영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원성 스님이 선보인 환경동화 <꽃비>는 열흘 만에 2만부가 팔리나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요정과 인간의 갈등을 통해 판타지적으로 그려낸 작품. 요정왕자가 환생한 ‘코코’가 목신들의 시험을 받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도깨비의 부탁을 들어주는 등 ‘코코’의 모험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이 잔잔한 감동과 함께 전해져온다.

원성 스님이 영국에서 귀국한지 한달 남짓. 스님은 3년간의 유학생활 동안 영국 미술국립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원 없이 그림만 그렸다.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미술국립학교의 교육은 내면에 숨겨진 창의성과 소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었다.

“순수 미술을 전공했어요. 밤 세워 작업하고 그림 정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내안의 여러 가지 몰랐던 것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유학 동안에도 2004년 말레이시아 팔라뽀푸르, 2005년 호주 시드니, 2006년 호주 멜버른에서 각각 전시회를 가졌다.

“제 그림이 불교철학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차마 끝 풍경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 불교를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 그림을 보면서 관람객들은 자유로움과 고요하고 선적인 느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환한 미소 지으시며 나가는 관람객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맑은 순수한 지혜 마음 되는 길 등에 대한 지향점이 합

환경동화 ‘꽃비’ 열흘만에 2만부 판매 인기

“동자승도 불교적 내용도 없는 책에 첫 도전”
유학 중에도 호주 등지서 3차례 전시회 열어
내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출간 예정
내년에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초청 줄이어

일되는 것을 느껴요.”

원성 스님이 1년간 꼬박 작업해 그려내는 그림은 70~80여점. “더 많은 이에게 그림을 보는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풍경> 등 책을 쓰게 됐다”는 원성 스님은 “그림은 한 번 그려져 있는 유리창 밖의 아름다움이라면, 책 속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직접 전하는 매개체이기에 좀더 내안의 여러 생각들을 전할 수 있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책을 쓰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자신의 책을 읽고 그림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포교라고 생각한다. 스님은 또한 독자들이 함께 마음 공부하는 도반이자 깨달음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스님은 그분들께 더 좋은 글과 그림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성 스님은 내년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책을 준비 중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답아가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렇게 답아가도록 만드는 책을 쓰고 싶어요. 세심하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내용이죠. 제 이야기가 50%는 밑거름입니다.”

책을 펴내는 외에도 2007년 말 말레이시아 전시회도 있다. 2008년에는 홍콩 전시가 2009년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초청전시회가 이어진다.

원성 스님은 2~3년 안에 경남 고성 육전사 보리수동산으로 작업실을 옮길 예정이다. 내년 여름경 30여평 규모의 작업실을 만들면 보리수동산에서 사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겠다는 발원을 했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림도 가르치고 제 작업도 하면서 전시회도 열면서 살고 싶습니다. 동자승 아이들과 자연 그리고 부처님 깨달음의 말씀을 제 그림과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해요. 매년 한월씩 꼭 선방에 들어가서 마음공부도 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영산재는 사찰문화 발전의 중심

“세계 문화유산 등재돼야”

영산재보존회 학술 세미나

“조선시대 선비들과 스님들은 산사에서 격의 없는 만남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만남을 가지던 당대 지식들에 의해 시·화·삼절을 즐기는 고급 문화예술의 장이기도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의 제4회 학술 세미나에서 김갑기 교수(동국대 국문학부)는 이렇게 주장했다. 산사가 문화공간이 되면서 제영시(題詠詩) 가운데에서 사찰제영시가 한 분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을 통해 사찰제영시의 세계를 분석한 김갑기 교수는 “사찰제영시를 통해 사찰은 해탈염원의 승무는 물론 비라춤 영산재 등 다양한 불교의식에 따른 각종 무용과 그에 따르는 음악의 시연장이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제영시는 ‘시적 흥취가 그 지역의 경치와 맞아서 그 진경을 그대로 묘사한 시’를 말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사찰제영시’로 분류되는 제영시에는 ‘금산사’ ‘영은사’ 등이 명작으로 전해진다.

12월 11일 서울 봉천사 범용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홍윤식 명예교수(동국대)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불교의례 영산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야 한다”며 “내 나이 70대에 들어서 마지막 원은 영산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우 명예교수(동국대 연극과)는 “한국 목련극에 나타난 지옥형상”에서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담긴 목련극은 중국에서는 ‘목련화’라는 연극의 한 장르로 자리잡았다”며 “우리나라의 목련극은 죽은 자는 죽음과 후세 사이의 중간 세계에 머무는 동안 생전의 업보에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장 공간보다는 사찰 경내에서 ‘우람본재’의 의식과 결부되어 이루어졌을 때 ‘목련극’은 확대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짓소리로 전하는 ‘옹호계’ ‘창불’ 두 곡의 선율적 특징을 살린 ‘범패 반짓소리 연구’의 발표자 장휘주 박사(서울대 국악과)는 “‘옹호계’는 첫 구와 둘째 구는 훗소리, 세 번째 구는 평염불로, 네 번째 구는 훗소리 짓소리 훗소리로 부르는 것이 특징이고, ‘창불’은 시작부분의 범청은 짓소리로 다음부터는 평염불로 쓰는 것이 나타난다”며 “반짓

소리라는 것은 선율의 일부만이 짓소리로 전하는 소리라는 것이 입증됐고 한 곡을 두고 훗소리에 짓소리로의 선율 이동이나 짓소리에 평염불로의 선율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티베트 불교 의식의 수행적 의미-약가무 등의 개별적 요소에서 종합 의례까지’를 발표한 최로연 객원연구원(티베트 불교 고등연구소)은 “티베트 불교의 의례의식은 깔라짜끄라 입문 관정식과 같은 큰 단위의 밀교 입문 관정 의식이나 티베트의 신년 불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제4회 학술세미나가 12월 11일 서울 봉천사에서 열렸다.

축제인 ‘판람’, 세체 승원의 축극은 물론이고, 일상의 수행의식인 7지 작법 공양과 같은 조그만 의식 행위에도 약가무가 들어있으며 이 개별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상징성과 수행적 의미가 확대되어 대중교화나 승가 교육의 전승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능화 스님(동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의 ‘범패의 전승’, 이명복 교수(동국대 법학과)의 ‘불교와 법 그리고 인간’, 이에 교수(서울대 체육학과)의 ‘불교와 무용’ 이명향 박사(일본 오쿠에의 ‘한일 불교음악’ 등이 발표됐다.

김지연 기자

보이차 전문점

진단포·화차·인삼오롱차·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차·외국산차의 맛

瑞榮香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인진썩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술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와 엿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땀·떡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들에게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위장, 간, **인진썩조청 1.2kg = 58,000원**
어혈에 좋은

산사조청원의 명품

숙이오르지 않는 **산사참옥 조청 1.2kg**
이월,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산사약도라지조청 1.2kg**
기력지, 현식, 기침, 가래,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사조청원**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완
원장/간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앞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할 때 100% 원장/간장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청국장 분말과 완**

▶ 청국장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화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완을 만들 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완**은 정선 동강 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데시던 쿨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압수수를 이용하여 완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순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010-4634-4311 청국장 완 500g 25,000원
원장 1kg 12,000원

바로보인인식들 **대원 문제원 선사님상담역사 / 지서**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혀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제원 선사님께서 일체종자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필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제원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된 경사에 대한 이렇게 밀필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파 우주탄생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달이 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과일의 왕 두리안

등안거를 맞이하여 올해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 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www.durianshop.com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